

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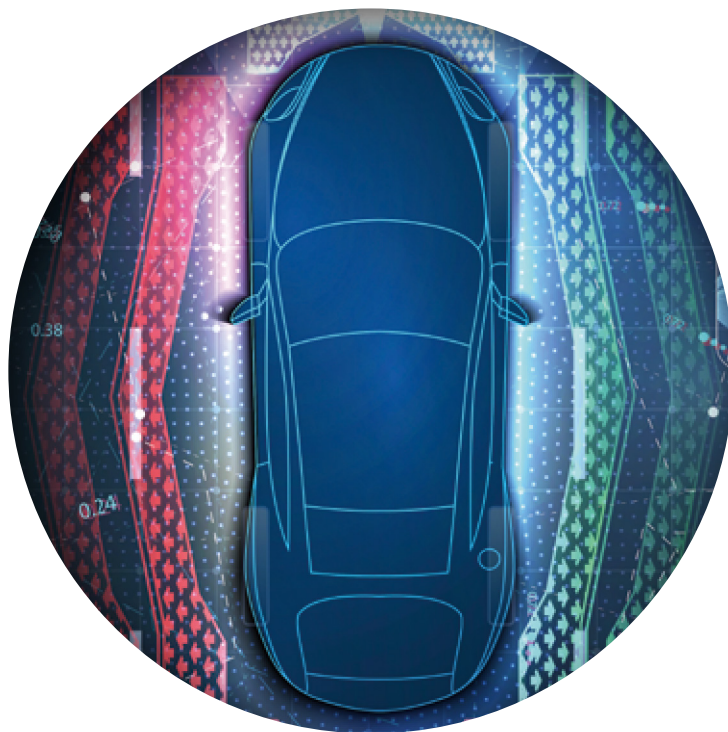
신성장

별을 쏘다

Vol.023

2021+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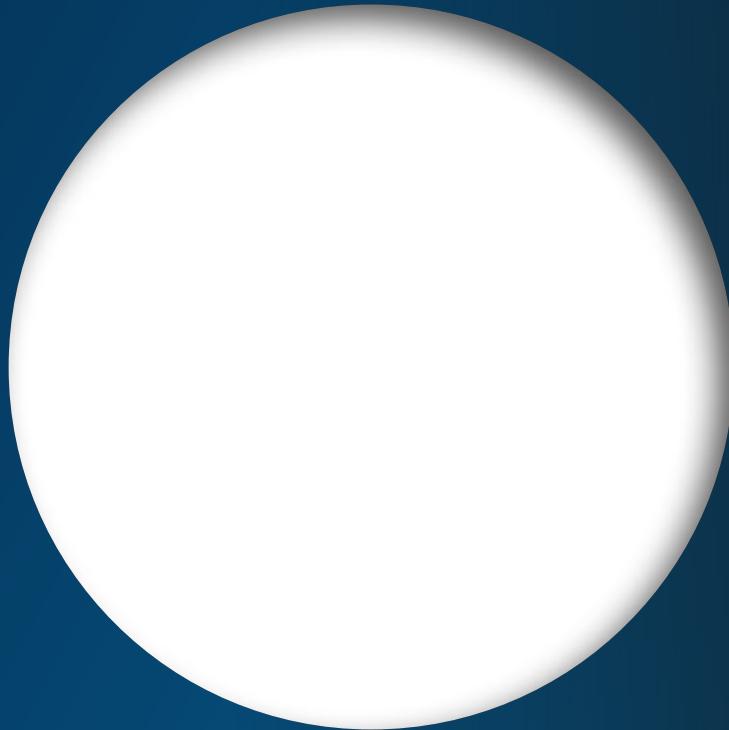
SUNGWOO
HITECH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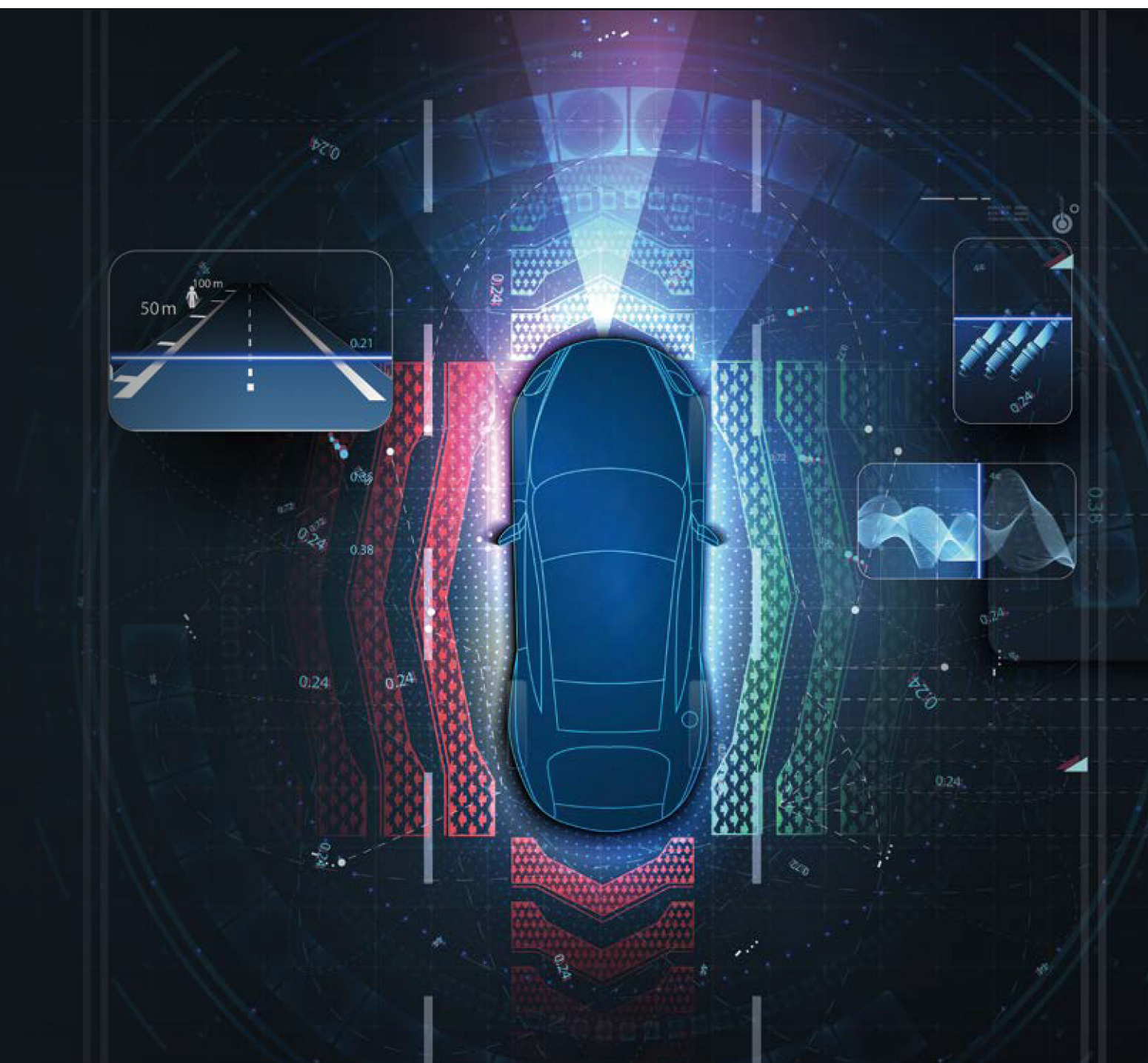
지난 40여 년 '혁신'으로 만들어진 성우의 역사.
지난해 성우하이텍은 축적된 경량화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분야에 진출하며 또 다른 혁신을 선포했습니다.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신제품"으로 "신성장"을 이루어낼
성우하이텍의 2021년을 기대합니다.

2021

**CREATIVE
NEW TECHNOLOGY
FOR THE BETTER
FUTURE**



SUNGWOO HITECH



CONTENTS

Vol.023 2021+SPRING

SUNGWOO
HITECH
MAGAZINE

10

NEW SUNGWOOD



18

SUNGWOO PEOPLE



26

TOGETHER



34

CHALLENGE



06 ISSUE & NEWS

08 2020 TOP NEWS

▶ 성우하이텍, 2020년을 빛낸 순간들

10 NEW SUNGWOOD

- ▶ 혁신적 신제품으로 신성장의 날개를 달다
성우하이텍,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 ▶ 성우하이텍 새 얼굴로 NEW START
신규 홈페이지 개설
- ▶ 성우하이텍 사무 혁신의 NEW FACE “S맨”
RPA 로봇 사원 도입

18 SUNGWOOD PEOPLE

- ▶ 짧은 글, 긴 여운
성우하이텍 <HRD 포스터>
- ▶ 박재우 사원, 카레이싱에 빠지다
- ▶ “가족은 나의 힘”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자 가족을 만나다

26 TOGETHER

- ▶ 도종복 부사장,
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

28 NEW TECHNOLOGY

- ▶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성우하이텍의 역할
- ▶ 전기차 부품사로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하다
북경성우, ‘2020 베이징모터쇼’ 참가

34 CHALLENGE

- ▶ 시행착오 넘어 새로운 도전을 향해
윤준영 사원의 생애 첫 온택트 마라톤 도전기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홍보동영상을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신제품 신성장

지난 40여 년 '혁신'으로 만들어진 성우의 역사.

지난해 성우하이텍은 축적된 경량화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분야에 진출하며 또 다른 혁신을 선포했습니다.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신제품"으로 "신성장"을 이루어낼

성우하이텍의 2021년을 기대합니다.

40

PHOTO ESSAY



44

MOVIE



48

GOING



54

SOCIAL CONTRIBUTION



38 CULTURE

▶ 조선 호랑이 흥에 세계가 들썩들썩

40 PHOTO ESSAY

▶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44 MOVIE

▶ 어른들을 위한 동화,
애니메이션으로 빛어내는 세계

48 GOING

▶ 해안가 드라이브 코스,
언택트 여행 GO GO~

54 SOCIAL CONTRIBUTION

▶ 어려울 때일수록 깊이 새기는
상생과 나눔의 의미

58 PSYCHOLOGY

▶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것이 '문제'라면
햄릿증후군

별을
읽는다

발행일 2021년 2월 5일 (통권 제23호) 발행인 이명근 사보기자 강승호, 김도형,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정보사업본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미디어줌 (Tel. 051-623-1906)

01. 성우하이텍, 부산 최초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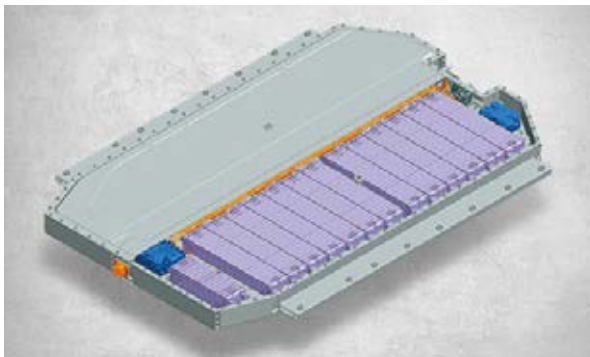
관련 기사
10p



성우하이텍이 부산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제1회 ‘소부장 으뜸기업’에 선정되었다. 1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소부장 으뜸기업 비전 선포식’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특화된 국내 최고 기업 22개사를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분야에서 수상하였으며, ‘카본 복합 소재 제조 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인정받았고, 그외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분야에 걸맞은 복합 소재 차체 부품 양산, 배터리 케이스 제작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성우하이텍은 2025년까지 친환경차 <복합소재 차체 상용화 경쟁력 1등>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02. GM 캐딜락 리릭(Lyriq) 등 수주 계약 체결

관련 기사
28p



(주)성우하이텍이 GM社와 Battery Enclosure(배터리 케이스&커버 부품) 수주 계약을 체결하였다. GM社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BEV3)을 적용한 캐딜락 최초 순수 전기차 ‘리릭(Lyriq)’의 Battery Case & Cover Sub Assembly를 (주)성우하이텍 멕시코에서 생산하여 납품할 예정이다. GM社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라인업에서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의 체질 변경을 진행 중이며, ‘리릭(Lyriq)’은 새 플랫폼으로 제작하는 첫 차량인 만큼 의미가 깊다. 이 밖에도 21년 11월에 출시될 전기 트럭의 차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기차·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는 여러 차종들의 차체 및 배터리 관련 부품 공급에 대하여 수주 계약을 체결하였다.

03. 도종복 부사장(인사정보사업본부), 코로나19 노동환경 변화와 지역 대응 토론회 지정 토론자로 참석

관련 기사
26p



10월 22일 오후 2시 벅스코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노동환경 변화와 지역 대응 토론회’에 도종복 부사장(인사정보사업본부)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노동법)가 ‘코로나19, 노동의 위기’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 도종복 부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AI, 스마트 공장, 사무 자동화(RPA)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근로 형태가 다변화(재택근무, 유연근무)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다.

04. 제6회 가라 kuri 경진대회 개최



11월 24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국내외 사업장을 화상연결하여 ‘제 6회 가라 kuri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들 만 참관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였다. 제 6회 가라 kuri 경진대회에서는 국내외 수십여 명의 발표자가 그동안 준비한 가라 kuri 기구와 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선보이며 총 48건 (국내 12건, 해외 36건)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명근 회장은 강평을 통하여 6회를 이어온 대회를 더욱 세밀하게 다듬고, 축적된 노하우 들을 뛰어넘는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05. 2020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대회 비대면 개최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2020 성우 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 대회’는 기존 마라톤과 달리 지역과 시간의 제약 없이 참가자들이 마라톤을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정해진 코스를 정해진 날짜 안에 뛰고, 마라톤 관련 앱을 통하여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어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20 부산바다마라톤 대회’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성우하이 텍과 함께하는 2020 국제신문 Virtual Race’ 역시 올리는 비대면으로 치렀다. 한시바빠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다시 예년의 활기찬 분위기의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06. 2020년 제57회 무역의 날 아산성우하이텍 김승환 팀장 대통령 표창 수상



아산성우하이텍 김승환 팀장(아산영업관리팀)이 수출 증대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진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아산 성우하이텍 김승환 팀장은 20년간 성우하이텍에 근무하면서 생산성 혁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매출 극대화, 수출 실적 향상에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각국 경제가 섰다운되고 세계무역 역시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우하이텍의 저력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였다. 🇰🇷

AWARD WINNER 2020

성우하이텍, 2020년을 빛낸 순간들

2020년은 불확실성의 한 해였습니다. 전무후무한 바이러스 사태와 그에 따른 해외 활동의 제약 및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성우하이텍은 그러나 빛나는 순간순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느 해보다 의미 깊게 기록될 2020년의 주요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2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외적 노력 - 성금 전달 및 물품 기증

- 02. 중국 충칭 장수구 정부에 마스크 10,000장 기증
- 03. 부산시/아산시에 코로나19 극복 성금 3억 원 전달
- 03~04. 대구/경북지역 긴급 구호물품 기부-마스크 30,000장, 방호복 300벌 기증



4월

성우 멕시코공장 GM 멕시코 우수 품질관리 업체 선정

- 2018. 12. C1UC (Chevrolet Blazer) 양산 및 BIQs Level 5 인증 취득
- 2019. 06. C1TL (Cadillac XT6) 양산
- 2019. 12. JBSC1 (Chevrolet Onix) 양산
GM Mexico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수상
- 2020. 04. GM Mexico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수상 - 2년 연속 선정



3월

성우하이텍 홈페이지 개편 홈페이지 개편(작업 기간 20.03.05 ~ 20.09.13)



6~11월

코로나19 조기 극복한 인도법인(첸나이)

인도 첸나이 (SHI/ SSP)

- 코로나19 발생 기간 : 2020.06.11 ~ 2020.10.22(134일)
- 확진 및 완치자 : 55명(총 2,067명 대비 감염률: 2.7%)



4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부적 노력 - 자가격리 숙소 & 구호물품 제공

- 해외 출장 복귀자 자가격리 숙소 & 구호물품 제공
- 해외 출장자 건강기능식품 지원
- 전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북경성우 20년 3개 차종 신차 출시



- 06. DN8C(소나타) 출시
- 09. CN7C(아반떼) 출시
- 11. DU2(미스트라) 출시

7월 2020년 현대모비스 우수협력사 선정

- 현대모비스 납기/납입율 관리 우수
- 2007년~2020년 13년 연속 우수협력사 유지 관리

BMW G22 4er Coupe 양산

- 07. 양산 시작**(G23 컨버터블 11월 양산)
 평균 양산 볼륨 : 80,000대/년
 공급 부품 : 센터플로어 앓세이 Top/Low, 패키지 트레이
 인라인 측정(이스라비전), Tünkers 알루미늄 행거 적용
 터널 / 사이드 판넬 공정 오토 로딩 적용



8월 수소 탱크 시스템(HTS) 연구설비 인프라 구축

- 08. 수소 용기 개발 인프라 구축**
12. 수소 용기 52L급 차체 모델 개발
2021. 06. 수소 용기 52L급 한국/유럽 인증 획득 예정
09. 수소용기 상용(175L급) 개발 예정
12. 곡관형 수소용기(EV 플랫폼 적용) 개발 예정
2022. 06. 수소용기 상용(175L급) 한국/유럽 인증 예정



사무 자동화 RPA 시범적용

- 02. RPA POC 적용**
 (3개 솔루션)
03. RPA Pilot 안건 접수
04. RPA 솔루션 업체 선정 및 도입 보고
05. RPA 시범적용 프로젝트 Go-Live
08. RPA 시범적용 프로젝트 구축 완료 및 시스템 안정화
11. 성우 RPA 캐릭터 공모 진행("S맨")



9월 글로벌 GM EV 배터리 팩 케이스 수주

- 09 GM BEV-3, C/BRACE 外 Sub 아이템 수주**
09 GM BET LWR VOLUME, C/BRACE 수주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인증 취득

- 09. 15. 일부 수출업체/수입업체 공인인증 취득 (관세청) : 공인등급 A Grade**

9~12월 배터리케이스 부품 및 차체 수주

- 09. GMNA BEV3 배터리케이스 부품 수주**
10. GMNA eLCV 차체 부품 수주
11. GMNA BEV3 차체 부품 수주
11. 베바스토 SG2/SX2 EV 배터리 케이스 수주
12. 멕시코 공장 BEV3 배터리 양산 예정(총 매출액 5,920억 원 규모)
2022. 01 멕시코 공장 eLCV 양산 예정(총 매출액 3,270억 원 규모)
2021. 11 멕시코 공장 BEV3 차체 양산 예정(총 매출액 1,950억 원 규모)
2022. 03 아산 공장 SG2/SX2 EV 양산 예정(총 매출액 2,760억 원 규모)

10월 글로벌 차종 수주 확대 'GMNA 차종'

- 10. eLCV 차체 (Amazon Van) 수주 - 19 END 140 ITEM**
11. BEV3 배터리 & 차체 (LYRIQ) 수주 - 63 END 176 ITEM
12. A100 차체 (Cruise Origin) 수주 예정

GM 올해의 협력사상(Supplier of Year) 수상

2019년도 Body & Exterior 부문 수상 / COVID-19으로 인한 VIRTUAL로 진행

11월 EV 배터리 팩 케이스 수주

- 11. 베바스토, SG2(니로 후속) 외 2차종 배터리 케이스 수주**
 현대모비스, PY FCEV(수소연료전기버스) 배터리 케이스 수주

Tesla Model Y 수주

- 11. Tesla Model Y 수주 (WMU 한원덴 견적 참여)**

Tesla Gigafactory Berlin 22 PARTS (알루미늄 20, 스틸 2) 2021년 4월 양산





혁신적 신제품으로 신성장의 날개를 달다

성우하이텍,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S U N G W O O H I T E C H

CREATIVE
NEW TECHNOLOGY
FOR THE BETTER
FUTURE



새해가 되면 누구나 천 년에 한 번 온다는 기회, 千載一遇(천재일우)를 꿈꾼다. 인생을 단숨에 변화시킬 만한 아주 귀한 순간을 만나기를. 그러나 인생을 바꾸어놓을 기회란 가만히 앉아 그것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코 오지 않는다.

모험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사람, 내재한 잠재적 힘을 믿고 스스로 혁신하는 사람,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경험 속에 노하우를 쌓아가는 사람. 자신에게 온 기회를 알아보고 단숨에 잡아챌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같은 기회 포착의 비밀은 기업 발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꾸준히 준비하는 기업, 혁신의 가치를 실천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 그런 기업이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알아본다. 즉,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기업은 준비된 자세로 기회 포착의 순간을 잡아채는 기업이다.



1월 11일 성우하이텍은 부산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범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사업인 '소부장 으뜸기업'에 선정되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으뜸기업 선정을 신청한 12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여 명의 전문가가 4단계 평가를 거쳐 2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성우하이텍은 '카본 복합 소재 제조 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인정받았고, 그외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분야에 걸맞은 복합소재 차체 부품 양산, 배터리 케이스 제작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성우하이텍은 향후 5년간 범정부 차원의 100여 개 가용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한 339개 공공기관 Test-bed 기반의 실증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400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정책 펀드를 우선 제공해 인수합병(M&A) 및 설비투자 등 필요 자금을 지원한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도 진행된다. 해외 유력 플랫폼을 대상으로 으뜸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기업별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여 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 진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축적된 경량화 기술과 노하우를 꾸준히 발전시키는 한편, 전기차 분야에 진출하며 미래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은 성우하이텍에 千載一遇의 황금 기회이다. 2021년 '신제품 신성장'을 공표하며 재도약의 의지를 다진 성우하이텍. 양산화 투자전략(국내 최초 복합소재 차체 부품 양산라인 구축), 고품질 생산전략(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글로벌 마케팅 전략(글로벌 역량 강화)을 발판 삼아 2025년까지 친환경차 '복합소재 차체 상용화 경쟁력 1등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이란?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성우하이텍은 '카본 복합 소재 제조 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인정받았고, 그외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분야에 걸맞은 복합소재 차체 부품 양산, 배터리 케이스 제작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기업 지원 전용프로그램

R&D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기업당 최대 50억 원/년) 및 민간부담금 완하
*기업 규모, 기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조정

실증지원

수요기업과의 양산테스트 지원, 339개 공공기관의 현장 Test-bed 개발 및 수요연계형 R&D 지원

융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자금, 환경·안전투자지원자금 등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펀드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M&A, 설비 투자 우선지원

규제특례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신속·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지원
*수급대응센터가 규제예로 접수→15일 내 개선여부 회신→제도 개선

성우하이텍 새 얼굴로 NEW START

신규 홈페이지 개설



기업정보

제품

COMPANY

KNOWHOW OF TECHNOLOGY

기술의 혁신은 기술의
노하우에서 시작된다.



“그 회사 좀 어떨니?”

이 질문을 받으면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초록색창 또는 흰색창(포털사이트라고도 합니다)에 ‘그 회사’ 이름을 한 번
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가져다 대고, 화살표가 손가락으로 바뀌는 순간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꼭! 짜란~ 새 창이 등장합니다.

그 회사 홈.페.이.지!

소개

인재경영

성우 어린이집

Intranet

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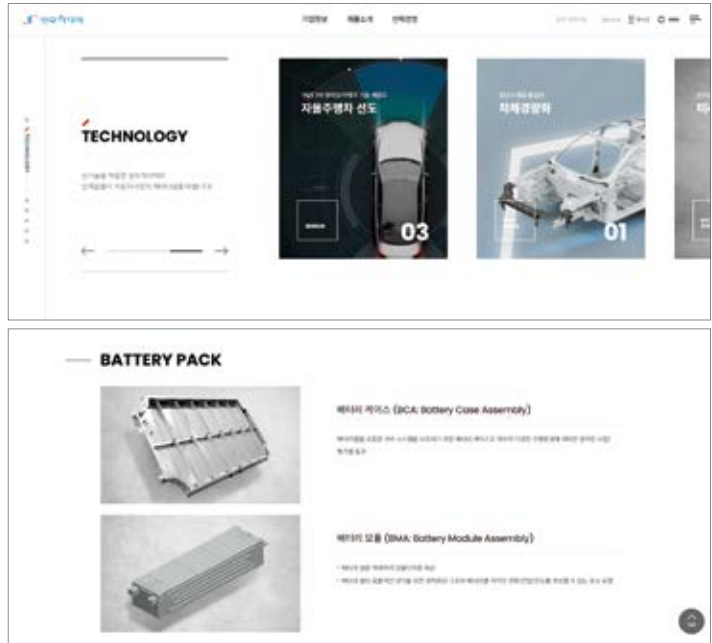
ENG



자극심 드높일 11년 만의 리뉴얼

홈페이지는 기업의 첫인상, 고객과의 약속, 소통의 장, 미래를 향한 비전입니다. 처음 회사를 접하는 고객은 홈페이지를 보는 순간 기업의 이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후 몇 번의 클릭을 통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서비스를 파악하고, 더 깊숙이 파고들면 고객뿐만 아니라 임직원, 나아가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이 머릿속에 새겨집니다. 홈페이지 구성구석을 다 살펴보고 난 후 기업이 가고자 하는 미래가 마음에 머뭇니다. 이렇듯 홈페이지는 눈의 즐거움, 머릿속의 지식, 마음속의 꿈을 알리는 장입니다.

성우하이텍은 2020년 9월 14일에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하였습니다. 2009년 개편 이후 부분 개편은 있었으나 성우하이텍의 미래 시장에 대한 도전 의지, 대외적인 회사 이미지 제고, 임직원들의 편리한 이용, 비즈니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수년간 몇 차례 전면 리뉴얼 추진이 여러 사정으로 무산되었으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성큼 다가온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성우하이텍의 축적된 기술력과 치밀한 준비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아울러 성우가족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가장 적절한 시기였기에, 홈페이지 개편이 가능했습니다.



공들여, 거듭 탐을 쌓고

11년 만의 전면 개편은 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녹록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최호철 차장(인사노무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시아, 유럽, 북중미의 11개국 36개 사업장의 방대한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모두 홈페이지에 구현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해외주재원을 경험하며 오랜 기간 쌓아온 최 차장의 국내외 인맥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방대하게 수집한 자료를 분류, 선별하고 공개 여부를 살피는 과정도 뒤따랐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은 최대의 난제였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과 임직원에게 재미(그저 멍하니 봐도 느낄 수 있는 재미, 이것저것 클릭해 보고 싶은 재미)와 더불어 성우하이텍이 자동차 시장에 기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알릴 수 있다면 완벽한 목표 달성이었지요. 거기다 성우하이텍이 추구하는 가치와 꿈까지 방문객들의 가슴에 담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감으로 구성을 기획하다 보니 몇 번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사의 새 얼굴, 홈페이지만 뜻한 바대로 나온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고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우하이텍의 역사와 미래를 한눈에

이렇게 완성된 홈페이지는 기존의 그것과 달리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메인화면 구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성우하이텍의 의지와 노력, 자신감이 표현될 수 있도록 시원한 이미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의 종류(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는 반응형 웹 디자인(RWD, Responsive Web Design)으로 나타냈습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활용하여 주제별 세로로 여러 장 나열함으로써 넓은 화면을 활용한 가독성 높은 디자인과 아래 화면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여 재미를 주었습니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다채로운 동영상은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는 홈페이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인 것은 ‘역사관’입니다. 성우하이텍은 1977년 창립 이래 반세기 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넘기고,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역사는 미래의 주춧돌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 성우하이텍의 역사를 통하여 개척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래를 위한 연구와 투자를 소홀히 하



지 않았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든 ‘역사관’은 성우가족에게는 새록새록 추억을, 고객에게는 40년 쌓아온 신뢰를 선사할 것입니다.📺

www.swhitch.com 성우하이텍 홈페이지!
그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우하이텍 사무 혁신의 NEW FACE “S맨”

RPA 로봇 사원 도입



“S맨”



‘로봇이 업무를 대신해준다?’

SF 소설이나 나폴레옹 이야기라고요? 실제 업무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나 서류 입력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

이런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지겨운 반복 업무, 누가 대신해주었으면...’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우하이텍 신입 사원, “S맨”을 찾아주세요!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주는 소프트웨어 로봇,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가 성우하이텍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판단이 필요치 않은 엑셀 업무나 전산 시스템 조회, 다운로드, 입력처럼 단순 업무를 자동화한 것입니다. 단순 반복 작업들을 로봇이 처리하는 대신, 직원들은 고부가가치의 일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어 최근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성우하이텍은 지난해 3월 사내 RPA 시범적용 안건 접수에 이어 솔루션 업체를 선정하고 8월 RPA 시범적용 프로젝트 구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직장 동료, 조력자 같은 성우만의 RPA 캐릭터 개발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캐릭터 개발과 함께 성우 임직원들이 직접 이름을 붙여준다면, 아직은 낯선 RPA를 더욱 친근하게 느껴 사내에 홍보도 되고 업무 협조 또한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사보 제작을 함께하고 있는 '미디어줌'과 협업하여 RPA 로봇 사원 캐릭터 개발에 착수, 친근한 이미지의 성우하이텍 로봇 사원을 만났습니다. 사내 그룹웨어(SWING)를 통해 성우하이텍, 아산성우하이텍 사무직 인원을 대상으로 한 캐릭터 명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155건의 캐릭터 투표와 캐릭터 명이 접수된 결과, 성우하이텍 RPA 로봇 사원 "S맨"이 탄생하였습니다.

"S맨" 캐릭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면서 성우인들이 이전 시범적용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보다 RPA에 호기심을 갖고, "S맨"이 어떤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RPA 시범적용 프로젝트에 이어 2월에는 RPA 1차 확산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사내 협조 공지를 통해 어떤 분야에 RPA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안건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성공적인 RPA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IT혁신팀과 안건 제안자들 간 밀접한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며 업무 상세 프로세스 설계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표준화 작업 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



잠깐! 마스크는 쓰셨나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한자리씩 띄어 앉아 주세요.



"S맨" 활용 예

- ▶ 수작업으로 데이터 복사-붙여넣기를 반복적으로 할 때
- ▶ 엑셀, ERP, SAP, HR 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의 자료를 취합할 때
- ▶ 시스템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메일로 전송하는 일이 잦을 때
- ▶ 같은 데이터를 여러 시스템에 반복 입력할 때



“헉, 어떻게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아~ 요즘은 이런 분위기를 선호하는구나!”

“음... 내가 더 배워야 할 것도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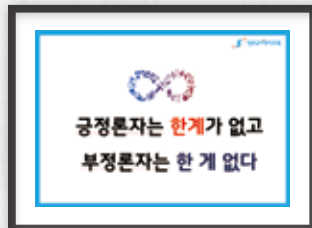
때로는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그림이 더 깊이 머릿속에 남는다.

시중에 자기계발 관련 서적은 수천 권이 있고, 책마다 나름의 교훈과 방법,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촌철살인의 한마디만으로도 ‘스스로 변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도 할 수 있다.

나아가 자기계발 서적을 찾아보고, 스스로 변하고자 노력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짧은 글, 긴 여운 성우하이텍 <HRD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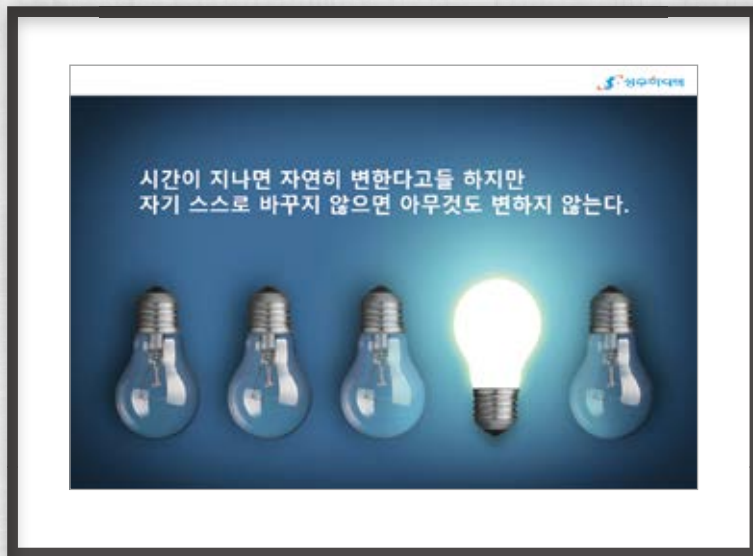


HRD

성우하이텍 사업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HRD 포스터>는 한 장의 그림과 짧은 문구로 임직원들의 두뇌를 즐겁게 한다. 성우하이텍의 국내 전 사업장에서 건다 보면 벽면, 엘리베이터, 분임토의장 등에서 이런 포스터를 만나볼 수 있다. 에티켓, 소통, 업무 효율성, 창의적 변화, 안전사고 예방 등 회사 내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뿐만 아니라 시대적 분위기, 삶의 지혜까지도 배우며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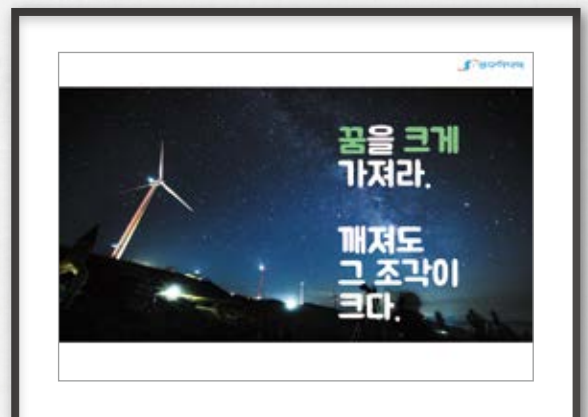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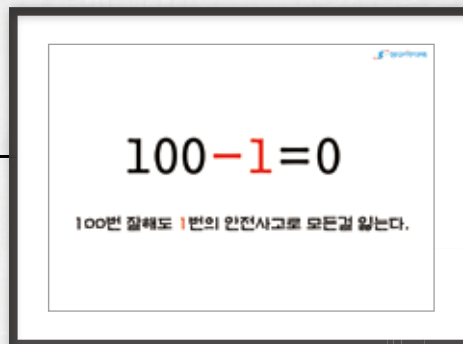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과 같이 요즘 유행하는 말도, “비워야 채운다”처럼 수십 번 들은 이야기도 좋다. 잠시 포스터 앞에 서서 ‘내가 대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비워야 하는 욕심은 없는가?’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소기 목적 달성이다.

교육의 목표가 시나브로 스며들어 한 사람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HRD 포스터>는 그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내가 창조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문구를 동료들과 함께 나누며 소통의 기능도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 한 번 성우하이텍을 거닐며 포스터를 잠시 보시라.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재미난 그림으로 한 번 웃으시지만 해도 좋다. 그리고 기대하시라. 다음에는 어떤 포스터가 게시되어 다른 즐거움을 줄 것인지.



—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변한다고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문성식 과장(IT개발팀, 공모전 1등)



Poster

지난 10월 성우하이텍은 “창조적 신기술로 더 나은 미래”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6년부터 진행되어 온 <HRD 포스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10월 26일부터 2주간 진행된 공모전에 총 104건의 포스터가 접수되었고, 이 중 후보작 48건을 선정한 후 임직원의 투표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우수작을 비롯한 13건의 아이디어 출품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고, 참여자 전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했다.

평균 속력 220km.

동물적인 스피드감과 체력으로 서킷을 누비는 전문 레이서들은
못 남성들을 설레게 하는 주인공이지 않을까.

제작년까지만 해도 생산기술1팀 박재우 사원에게
서킷과 레이싱 카, 서킷 위에서의 랠리는 꿈만 같은 일이었다.

박재우 사원,

**카레이싱에
빠지다**



CAR RACING

막연한 꿈이 현실이 된다는 것

* 현대자동차가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국내 첫 고성능차인 벨로스터 N을 경주차로 튜닝해 진행하는 경기로 2019년 시작되었다.

박재우 사원(생산기술1팀)이 카레이싱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기억나지 않을 만큼 어릴 적부터 차를 좋아하고 차 타는 걸 좋아했다. 나이가 든 후엔 경기장을 찾아가서 볼 정도였지만, 선뜻 직접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건 쉽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레이싱은 진입 장벽이 꽤 높은 취미였다.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는 차를 구매하여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R-Tune)부터 헬멧과 슈트, 슈즈 등 필수 안전 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관련 자격도 취득해야 한다.

쉽지 않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2019년 성우하이텍 입사 후 조금씩 바뀌었다. 생활이 안정되다 보니 어릴 적부터 꿈꾸던 일들이 떠올랐다. 막연한 꿈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해진 것은 그때부터였다. 한 번 마음을 먹은 후엔 거침이 없었다. 인터넷 동호회를 기반으로 한 카레이싱 팀 "TEAM HMC"의 드라이버 모집공고에 통과한 이후 활동은 탄력을 받았다. 아마추어팀 중에서는 규모가 있는 이 팀에서 활동하며, 대회 출전 시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거나 차량을 손봐주는 미케닉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대회 정보며 놓치기 쉬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도 팀을 통해서다.

“카레이싱이 위험하다는 선입견도 있지만 실제로 해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시설이 마련된 경기장에서 하기도 하고, 선수 스스로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거든요.”

현재 박재우 사원이 출전하는 경기는 '벨로스터 N컵(VELOSTER N Cup)*' 대회의 '타임 트라이얼(Time-trial)'이다. 주말 이틀 동안 1회당 20분씩 총 4번 주행하며 기록한 4회의 베스트 랩타임으로 순위를 가려 포인트를 산정한다. 4회차 주행 후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포인트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결정 짓는다. 스프린트 경기 못지않게 스릴 있으면서도 레이스 초심자들이 도전하기에 좋은 경기이다.





PARK

JAE-WOO

얼떨떨했던 첫 대회와 기록 경신

첫 대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경기가 진행되는 트랙의 한 바퀴는 3.8km. 박재우 사원이 참가하는 타임 트라이얼에서는 최고속력이 200km까지 나온다. 일반도로를 달릴 땐 쉽게 상상하기 힘든 속도다. 피트에 정렬하고 있던 짧은 순간이 마치 몇 년은 되는 듯 더디게 흘렀다. 이처럼 출발 직전의 긴장과 설렘은 아직도 가슴 떨리게 한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고 가속을 할 것인지 영상으로 공부도 하고 몇 번을 시뮬레이션해봤지만, 실제로 핸들을 잡고 출발 신호를 기다릴 땐 모두 소용없이 느껴지더라고요.”

시뮬레이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실전! 스스로 한계나 수준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불안 요소였다. 동호회의 다른 동료들은 데이터가 쌓였으니 본인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서킷도, 실제 경기도 처음이다 보니 모든 것이 불안했다. 그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준 것이 팀 동료들의 응원이었다.



일과 취미, 황금 밸런스를 찾으며

레이싱을 시작하며 박재우 사원의 일상엔 '활력'이라는 단어가 함께하게 되었다. 마냥 꿈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에 도전하고 또 성과를 내는 것이 일상의 큰 자극제가 된 것이다. 남다른 취미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에 대한 애정도 커졌고, 일상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취미는 또 취미대로 즐기며 '일과 취미의 황금 밸런스'를 찾은 것이다. 향후 몇 년간은 이 취미에 더욱 집중하고 싶다는 박재우 사원은 아마추어 레이서로서 목표를 전하였다.



“레이싱의 매력을 뭐라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 정도로 좋습니다. 서킷 위에서 달릴 때면 치열함과 스티일에 몸이 떨릴 정도이고, 결승선을 들어설 땐 그저 행복하거든요. 올해까지는 좀 더 치열하게 해볼 생각이에요. 당장은 기록 단축이 목표입니다.”

남다른 취미를 통해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박재우 사원의 레이스를 응원한다. 🏁

올해 처음 대회에 출전한 만큼 팀 내에서는 '레린이(레이싱+어린이)'로 불리는 박재우 사원은 부담을 내려놓고 출발 신호를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내려진 출발 신호. 출발 신호가 울린 다음의 기억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박재우 사원은 머쓱하게 웃어 보였다. 결에서 달리는 다른 선수들을 신경 쓸 여유도 없이 현실 같지 않은 시간을 달렸다. 그리고 박재우 사원의 손엔 2분 10초라는 기록지가 남았다.

첫 기록으로 잘했다고 하기도, 못했다고 실망하기도 모호한 민송민송한 결과. 그러나 첫 대회 이후 4개월여가 지난 후 1분 57초대의 좋은 기록을 낼 정도로 성장했다. '레린이' 탈출도 멀지 않은 듯 보인다.



“가족은 나의 힘”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자 가족을 만나다

2020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①



하 상 진 책임 연구원

(R&D본부 EV 시작개발팀)

하상진 책임연구원은 EV 시작개발팀에서 신사업 발굴 및 사업화 기획, 글로벌 고객사 기술영업으로 배터리 부품 수주에 기여하였다. 성우 자체 배터리 CASE 자체 개발에 기여한 데 이어 배터리 부품 개발 및 시작품 비용 2.58억 원을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축하
해요

“멋진 남편, 든직한 아빠 하상진 연구원님.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수상한 거 축하해요~ 모두 우리 덕분인 거 알고 있죠?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고생 많았어요. 회사에서도 힘들 텐데 집에 와서도 세 아이와 놀아주고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성우가족 여러분,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2021년에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모두 사랑해요.”

감사
해요

“회사 차원에서 보았을 때 사업부가 생긴 지 2년 정도 됐고, 다양한 일을 진행하며 조직이 커나가는 중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 이목을 받

는 것 같으며, 향후 미래 사업적인 측면에서 사업부 전체를 대표하여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동료들과 열심히 하여 회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작년엔 출장도 많이 가고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써줘서 많이 힘들었을 거야. 당신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세 딸에게도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야.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요즘 재택근무를 하면서 당신이 혼자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많이 느껴. 올해는 더 많이 도와주도록 할게. 많이 고맙고 사랑해.”

성우하이텍은 매년 초 지난 한 해 동안 성우하이텍 발전을 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낸 두 사람을 선정, '자랑스러운 성우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R&D본부 EV 시작개발팀 하상진 책임연구원과 생산/기술본부 금형반 신용석 반장이 영예를 안았다.



▲ 가족 축하 영상

2020 자랑스러운 성우인상 ②



신용석 반장

(생산/기술본부 금형반)

신용석 반장은 '헤밍 금형 수정'의 일인자로, 타사에서도 곤란해하던 RG3 HOOD 단차 및 품질문제를 해결하여 회사의 명예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18년 '사내 테크데이'에는 'TL RR DR INR LH/RH 싱킹홀 장치' 개발로 장려상 수상 및 'JX, RG3 DR INR 레치 싱킹홀' 적용으로 공법을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축하
해요

“이번에 아빠께서 큰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어요. 아빠도 처음 받는 상이라며 많이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큰 상을 주신 회장님과 사장님, 성우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수고하셨고, 2021년에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성우하이텍 사랑해요!”

감사
해요

“입사 후 처음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올해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하이텍에 부합하는 리더로서 회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딸 수현이와 둘째 채원이, 셋째 혜원이, 막둥이 효원이까지. 너희들 덕분에 힘든 일을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빠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바빠서 자주 놀아주지 못하는데, 큰일을 겪고도 늘 밝게 자라주어서 고맙다. 올해는 너희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아빠가 더 노력할게. 고맙고 많이 사랑한다, 우리 딸들.”



도종복 부사장, 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

엘리베이터에 못 보던 필름이 붙어 있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던 일도 기억 저편 아스라이 멀어지고,
어느새 어느 엘리베이터에서나 원래 붙어 있던 것인 양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재채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던 사람들도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스크
사용법에도 익숙해진 시대, 어느 가게를 가든 능숙하게
방명록을 쓰고, 체온 검사를 한다. 그 밖에도 팬데믹,
언택트, 집콕, 배달, 확진자, 캠핑, 차박, 사회적 거리두기,
가림막, 주먹인사라는 단어들이 코로나19
유행과 더불어 2020년을 휩쓸었다.
기업 환경도 녹록지 않았다. 여행 취소에 따른
여행업체, 숙박업체, 항공업체의 위기가 연일 보도되고,
소비심리 위축, 해외시장 악화, 생산환경 저하로
수많은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예상할 수 없었던
악재에 휘청거렸다. 자율근무제, 재택근무, 채용 감소,
무급휴직, 조직 규모 축소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도 심상치 않게
등장했던 2020년이였다.

“‘설마’ 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겠어?’ ‘설마 이렇게
수능을 보겠어?’ ‘설마...’ 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일어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벅스코(BEXCO)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가 주최한 ‘코로나19 노동환경 변화와 지역대응 토론회’에서
진행을 맡은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시작 인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술렁였다.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로 변화했던
일상들을 떠올린 것도 잠시, 변화를 변화라 여기지 못하고 어느
새 익숙해진 일상으로 느낀 것에 다시 한 번 놀랐다.

“포스트 코로나19, 산업환경은 빠르게 변합니다. 사람의 인식 변화 속도는 산업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요. 과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산업환경이 일시적·임시적일까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에 대하여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 산업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노사정이 함께 극복하고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당사의 도종복 부사장(인사정보사업본부)을 비롯한 성영식 정책기획본부장(한국노총 부산본부), 김덕중 본부장(부산경영자총협회), 김명우 노사상생지원과장(부산지방고용노동청), 김상대 인권노동정책담당관(부산광역시), 노기섭 의원(부산광역시의회)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발제자인 권혁 교수가 “코로나19, 노동의 위기”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서 한국노총 성영식 본부장이 “노동자 안전보건 및 고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당사 도종복 부사장이 “코로나 리스크에 따른 기업의 노동 환경 변화”, 부산경총 김덕중 본부장이 “코로나19 산업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전망 및 제언”, 부산고용노동청 김명우 과장이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동향 및 고용노동정책”, 부산시 김상대 담당관이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위기대응 방안”, 부산시 노기섭 의원이 “민선7기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 순서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AI, 스마트 공장, 사무자동화(RPA)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근로 형태가 다변화(재택근무, 유연근무)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도종복 부사장은 이와 같이 설명하며,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다.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변화된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임기응변 근시안적 대응이 아닌,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영과 노동환경의 구축 마련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 도종복 부사장(성우하이텍 인사정보사업본부)

1. 김상대 인권노동정책담당관(부산광역시)
2. 김명우 노사상생지원과장(부산지방고용노동청)
3. 성영식 정책기획본부장(한국노총 부산본부)
4.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5. 노기섭 의원(부산광역시의회)
6. 김덕중 본부장(부산경영자총협회)





Electric Car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성우하이텍의 역할

‘어차피 화력 발전소로 전기를 만드는데... 전기차가 환경을 보호한다구요?’ 우리나라 에너지 총 생산량 중 화력발전 비율은 약 66%(천연가스, 석유, 석탄, 2015년 기준)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줄어든다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전기차가 직접 석유(가솔린, 디젤)를 사용하지 않을 뿐,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로 자동차를 운행하므로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을 안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 전기차 시대를 앞당긴 비밀

일반적으로 화석연료의 에너지효율¹은 60%인데,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25~30% 정도에 해당하며, 시내 주행 시에는 15%로 더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시내를 달릴 때 석유로 얻은 에너지의 80% 이상은 버리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무려 95%에 해당합니다.² 즉 전기 배터리를 통해 나온 에너지의 대부분을 주행에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하여 전기차가 대기오염, 자연환경보호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에너지 효율을 가볍게 여기더라도 전기차 시장은 향후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편리하게 이동시켜 줄 수 있을까?’

결국 자동차의 본질로 천착³하면 “자율주행”입니다. 100년 자동차 역사상 혁신적인 기술의 대거 등장으로 자동차 산업이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술 혁신은 인간에게 “Freedom in the Car”는 물론 “Safety Out of the Car”를 선사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율 주행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출시된 차량으로 거리를 나가면 각종 경보음이 들립니다. 차선을 벗어나려 하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LDWS⁴)의 ‘뚜뚜뚜’, 후진하는데 주변 차량이 끼어들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⁵)의 ‘띠띠띠’가 울립니다. 앞 차와 간격을 정해 주면 설정된 속도로 차 간 거리를 유지하는 어드밴스트 스

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⁶), 운전자가 졸음 운전 또는 부주의로 차선을 벗어날 경우 차가 자동으로 핸들을 돌려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LKAS⁷), 예견치 못한 전방 차량의 정지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지하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⁸)이 도로에서 운전자의 긴장과 피로를 덜어 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간 거리를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HDA⁹), 교통체증으로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차선의 적당한 곳을 식별하여 안전하게 끼어들도록 돕는 혼잡 구간 주행 지원 시스템(TJA¹⁰)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심 자율주행(UAD¹¹), 선행차량 추종 자율주행 (PVF¹²), 자율주차 시스템 (AVP¹³) 기능이 기술적으로 완성되어 상용화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 기술이 이렇게 많지만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모두 레이저, 라이다, 센서 등 전자 통신 장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 통신 장비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와 연동이 훨씬 잘 되리라는 것은 쉽게 연상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기차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부정적인 의견과 음모 속에서도 전기 자동차 시장은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 1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투입한 에너지에 비해 실질적인 유효 에너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것.
- 2 내연기관 자동차에 석유 100을 투입하면 25~30만 주행에 사용(시내 주행 시, 15)
전기차는 석유 100을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60이 사용되고, 다시 95%의 에너지효율에 해당하므로 약 57이 주행에 사용(60X95%)
- 3 어떤 원인이나 내용 따위를 따지고 파고들어 알려고 하거나 연구함.
- 4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5 Blind Spot Detection
- 6 Advanced Smart Cruise Control
- 7 Lane Keeping Assist System
- 8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 9 Highway Driving Assist
- 10 Traffic Jam Assist
- 11 Urban Autonomous Driving
- 12 Preceding Vehicle Following
- 13 Autonomous Varlet Parking



▲ 앞차와 간격을 정해두면 설정된 속도로 차 간 거리를 유지하는 어드밴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운전자가 졸음운전 또는 부주의로 차선을 벗어날 경우 차가 자동으로 핸들을 돌려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LKAS), 예견치 못한 전방 차량의 정지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지하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

전기차 성공의 열쇠는 “경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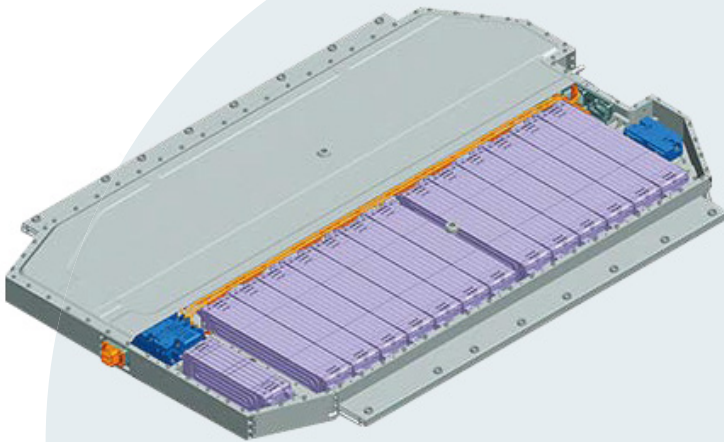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전기차에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전기차의 아킬레스건¹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무게입니다. 전기차로 유명한 T사의 최근 모델 S 공차중량은 2,108kg인데, H사의 최근 출시된 G의 3.3 가솔린 차의 공차중량은 1,660kg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3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한 데 비해 전기 자동차는 그 1/3 정도 부품으로 조립이 가능함에도 그 무게가 더 무거운 이유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이 배터리의 무게가 전기 자동차를 내연기관 차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요인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성공은 경량화에 있습니다. 경량화는 배터리팩과 차체, 두 가지에서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선, 배터리팩의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무게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T사의 모델S의 공차중량 2,108kg 중에 배터리의 무게가 543kg을 차지하고 있어, 이것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무거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배터리의 무게를 줄이면 연비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최대 약점인 충전소가 적은 문제, 충전 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배터리팩과 함께 차체의 무게를 줄이는 방향도 병행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합금,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등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차체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전기 자동차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주 로켓에 사용되는 신소재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Creative

14 치명적인 약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배터리 시스템



▲ 알루미늄 도어



▲ 알루미늄 범퍼

전기차 시대!
성우하이텍은
창조적 신기술로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 2020년 국내 최초 레이저 알루미늄 용접 기술을 적용하여 제네시스 G80(상)과 GV80(하)의 성공적인 런칭에 기여하였습니다.

New Technology

창조적 신기술!

미래를 달리는 성우하이텍의 경쟁력

성우하이텍은 40년 차체 제조 역사를 바탕으로 자동차의 경량화와 강성 유지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량화와 강성 유지에 알맞은 알루미늄 합금,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소재를 이용한 차체 개발에 성공하여 실제 자동차에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케이스와 수소차 저장용기탱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친환경차 부품의 경량화와 강성 유지에 성우하이텍이 가진 노하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GM 본사와 북미 공장에서 주목할 만한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GM본사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BEV3)을 적용한 캐딜락 최초 순수 전기차 '리릭(Lyriq)'의 차

체와 배터리케이스를 (주)성우하이텍 멕시코에서 생산하여 납품할 예정입니다. GM社は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라인업에서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의 체질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리릭(Lyriq)'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제작하는 첫 차량인 만큼 그 의미가 깊습니다. '리릭(Lyriq)'은 2021년 12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성우하이텍이 생산한 부품과 함께 세계의 도로를 누빌 것입니다.

이 밖에도 (주)성우하이텍은 친환경차·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는 여러 차종들의 차체 및 배터리 관련 부품 공급에 대하여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성우하이텍은 변화하는 자동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전기차 부품사로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하다 북경성우, '2020 베이징모터쇼' 참가



자동차 업체들이 자사의 차량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최적의 행사인 모터쇼. 모터쇼에서 신차를 첫 공개하기도, 향후 개발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 콘셉트카를 선보이기도 한다.

업체별 신기술 공개의 장이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초로 개최된 '베이징모터쇼'는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



애초 3월 진행 예정이었던 베이징모터쇼는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됐다. 파리모터쇼나 제네바모터쇼 등 주요 모터쇼가 취소된 상황이었던 만큼, 베이징모터쇼에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린 2020 베이징모터쇼는 '미래 스마트 차량'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되었으며,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다양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보였다.

2020 Beijing Motor Show

북경성우 주재원도 국경절 휴가 기간에 개최된 베이징모터쇼에 참여하였다. 2016년 이후 지속된 차량판매 감소 및 연이은 신차 판매 부진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주재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맞이한 모터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동차시장의 흐름 및 중국시장에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는 고객사(북경현대/염성기아/상해GM)의 동향을 살펴볼 기회이기도 했다. 고객사 역시 자사의 고성능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고객사에서 준비한 부스에는 2018년 모터쇼 대비 준비 및 참관인의 반응이 대단하였다. 경쟁차와의 비교 우위를 직접 느낀 한편, 이를 계기로 중국 시장에서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껏 느끼게 된 좋은 기회였다.

이번 모터쇼는 국내 자동차 차체 분야를 선도하며 축적된 경량화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분야에 진출한 성우하이텍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다. 성우하이텍은 경량소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왔다. TWD, 롤포밍, 핫스탬핑 기술로 성형해온 기존의 경량소재 제품에 기계적 체결과 레이저 접합기술을 접목, 차체의 경량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런 축적된 경량화 기술은 전기차 차체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배터리팩에도 접목 가능하다. 성우하이텍은 금속으로 구성된 배터리팩 하부 케이스 및 커버, 배터리 모듈, 냉각판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틸 배터리팩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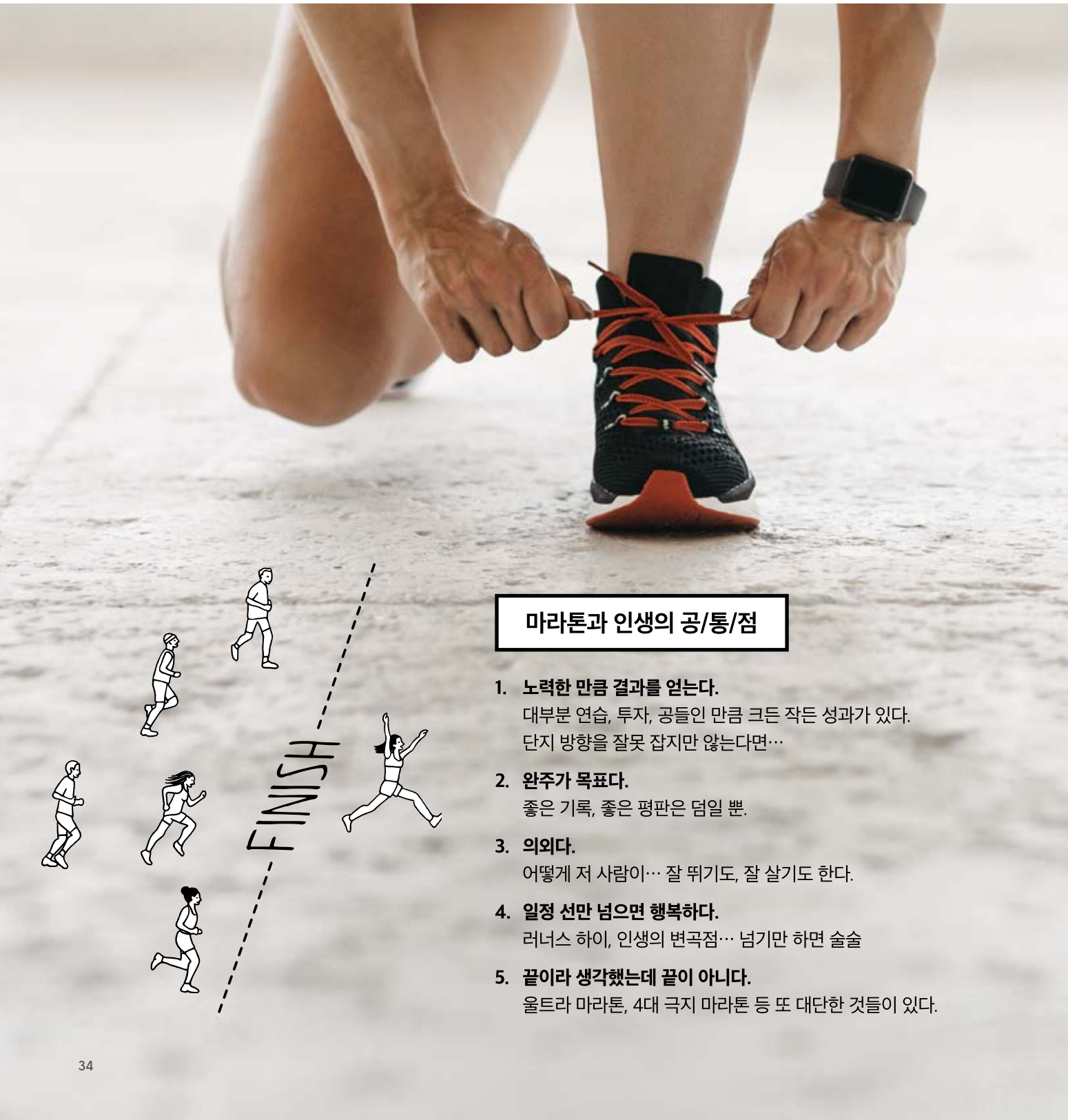
미늄 배터리팩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런 기술력은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를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기술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베이징모터쇼. 이를 계기로 전기차 분야에 진출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성우하이텍의 더 힘찬 2021년을 기대한다. 🚗



시행착오 넘어 새로운 도전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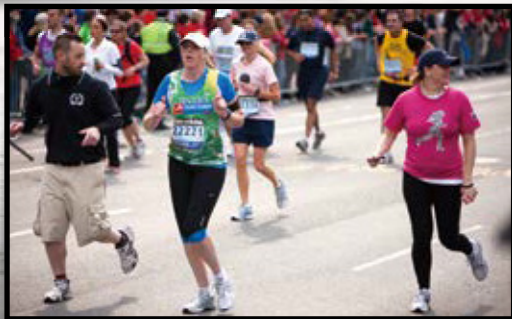
- 윤준영 사원의 생애 첫 온택트 마라톤 도전기 -



마라톤과 인생의 공/통/점

- 1.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대부분 연습, 투자, 공들인 만큼 크든 작든 성과가 있다.
단지 방향을 잘못 잡지만 않는다면...
- 2. 완주가 목표다.**
좋은 기록, 좋은 평판은 덤일 뿐.
- 3. 의외다.**
어떻게 저 사람이... 잘 뛰기도, 잘 살기도 한다.
- 4. 일정 선만 넘으면 행복하다.**
러너스 하이, 인생의 변곡점... 넘기만 하면 술술
- 5. 끝이라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다.**
울트라 마라톤, 4대 극지 마라톤 등 또 대단한 것들이 있다.

ONTACT MARATHON



▲ 로테르담 마라톤(상), 보스턴 마라톤(하)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마라톤 도전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124년 역사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차례의 연기 끝에 취소되었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취소된 이후, 3번째 취소라고 하니 코로나19가 전쟁만큼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뉴욕, 보스턴 마라톤은 취소했고, 로테르담 마라톤은 무기한 연기로 사실상 2020년에는 개최하지 않는다. 런던 마라톤만 10월 초에 개최했는데, 2.1Km 특설코스를 마련하여 20바퀴를 달리는 형태로 최소한의 선수 및 관람객만 참가한 채로 진행했다.

성우하이텍은 매년 3월, KNN과 함께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2월 말경부터 국내에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회를 한 차례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한 날짜까지도 바이러스는 소멸하지 않았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늘 그렇듯 포기는 쉽고, 도전은 두렵다. 해마다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건강한 발걸음을 내딛는 건각들의 축제를 쉽게 접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온택트(ONTACT : Online + Untact) 마라톤이었다. 3일간(10월 9, 10, 11일) 부산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4곳(APEC나루공원, 수영교, 뉴타운교, 대저생태공원) 중 1곳을 선택하여 '트래킹'이라는 러닝앱을 통하여 완주한 후 인증하는 방식이다. 참가자가 모두 모여 접촉하는 것을 피하면서 지역과 시간에 상관없이 마라톤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참가자의 '정직' 위에 발전된 '기술'과 운영진의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만든 대회였다.

이 외에 올해 열린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20 부산바다마라톤대회'(11월 2일~8일)와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20 국제신문 Virtual Race'(11월 11일~15일)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실감케 하였다.

CONTACT MARATHON

윤준영 사원의 온택트 마라톤 도전기



10월 11일 아침 8시. 대저생태공원에서 윤준영 사원(핫스탬핑 보전반)은 운동화 끈을 고쳐 맸다.

한 달간 틈틈이 훈련한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를 비롯하여 부산과 건천 곳곳을 누비며 기록 단축을 위해 애썼다. 아침 날씨도 도와주는 것 같다. 햇볕도, 바람도, 온도도 시작부터 발걸음이 가볍다.

윤준영 사원의 마라톤 도전 코스 :

대저생태공원 10km



COURSE 1



COUR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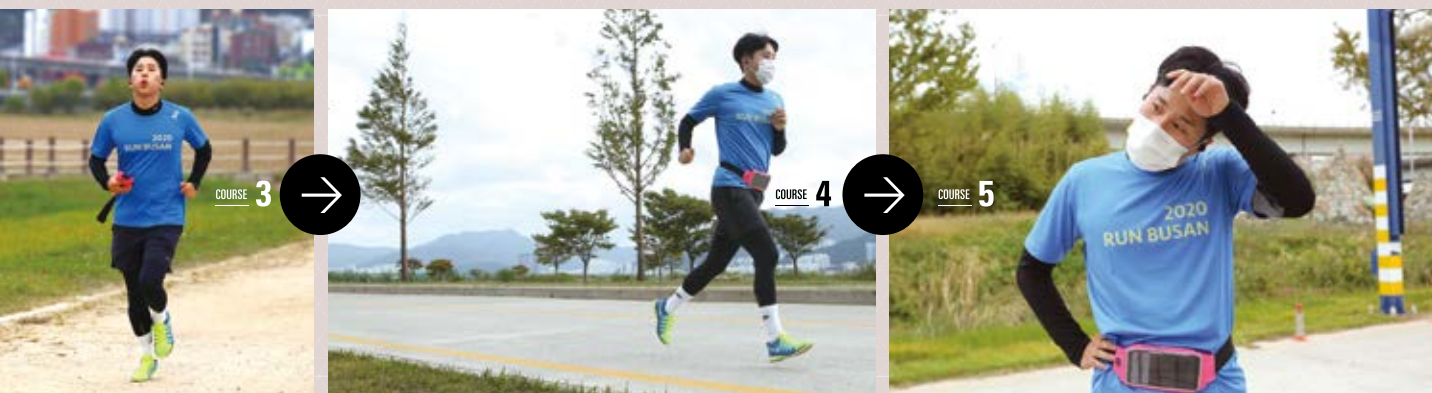


윤준영 사원은 마라톤 전도사이다. 스무 살, 군대에 입대한 이후 꾸준히 뛰면서 부쩍 건강해진 몸과 기록 달성을 할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희열을 느꼈다. 전역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마라톤을 권유하고, 자신도 매년 2~3회씩 대회에 참가해 왔다. 이번 대회도 사촌 누나와 함께 한 달간 준비하였지만, 누나의 사정으로 함께 뛰지 못해 아쉬웠다. 마라톤에 임하는 윤준영 사원의 최종 목표는 '폴코스 서브3(42.195km를 3시간 이내 완주)' 달성이다. 오늘은 생애 첫 온택트 마라톤에 도전하며, 10km를 50분 안에 주파하는 것이 목표이다.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설렘과 긴장을 느끼던 평소와 달리 러닝 앱을 켜고 달릴 준비를 하려니 어색함이 밀려든다. 다른 선수들과 어울려 출발 신호를 기다릴 때의 감정이 새삼스럽다.

그래도 뛰는 동안 대회 유니폼을 입고 뛰는 사람들이 간간이 보였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매들이 모두 활기가 넘친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기간 움츠렸다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걷고 뛰는 기분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 우울, 피로를 모두 강바람에 날려 버리고 희망, 도전, 건강, 행복을 얻어 오는 기분이다.

도전했던 기록에는 결국 실패했다. 처음 달려보는 코스, 중간에 표지판을 잘못 봐서 경로 이탈, 종료 지점에서 주춤거리는 바람에 늦어졌다.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이내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도전해서 다 성공하면 무슨 재미가 있으랴.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하게 하고, 어제보다 나은 기록을 꿈꾸며, 기록 달성을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라톤의 묘미 아니겠는가. 윤준영 사원의 이번 마라톤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

★ 구포대교 출발 ⇨ 강서 다목적운동장 ⇨ 공항입구 교차로 인근 반환 ⇨ 메타세콰이어 길림길 ⇨ 구포대교 도착



조선 호랑이 흥에 세계가 들썩들썩

지난해 연말, 한국관광공사가 내놓은
홍보영상이 동영상 사이트에서 소위 ‘대박’이 났다.
‘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타이틀로 제작된 동영상은 1월 현재
전 세계 3억 뷰를 돌파했다(SNS 포함).
홍보영상에 으레 등장하는 유명한 스타도,
잘 알려진 한국 음식도 하나 없는 대신,
낮선 듯 낯설지만은 않은 음악에
댄서들의 흥이 입혀졌다.

* 이미지 : 유튜브 ‘한국관광공사 TV’ / NPR MUSIC



범 虎 내려온다

흥 興 오 른 다

뚜둥 뚼뚼두, 뚜둥 뚼뚼두~
절로 어깨가 들썩여지는 베이스/드럼 리듬에 이어 예상을 깨
는 노랫말이 따른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림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
려온다. 몸은 얼송덜송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누에머리 흔
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아 같은 뒷발로 양 귀 찢어지고...”



판소리 보컬 네 사람과 베이스 두 명, 드럼 세션으로 구성된 어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와 장르에 얽매이지 않은 춤을 추구하는 현대무용단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콜라보다. 이날치는 전통 판소리 <수궁가>의 주요 장면을 선별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편곡한 <범 내려온다>, <좌우나줄>, <어류도감> 등을 선보였다. 서울 편에 쓰인 <범 내려온다>는 토끼를 찾아 육지로 온 자라가 그만 턱이 빠져 '토 생원' 할 것을 '호 생원'이라 부르는 바람에, 이를 들은 호랑이가 좋아라고 내려오는 모습을 담았다. 비트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등장하는 댄서들은 단연 압권이다. 동양풍 오색 비단옷에 도포, 고무신 차림. 갓과 망건 아래로 쓴 반전 선글라스에 피식, 웃음이 샌다. 신명나는 리듬과 찰떡인 몸재간을 선보이면서도 연신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비된다. 전통 판소리에 더해진 밴드 연주, 여기에 힙합 춤사위가 함께하는 그야말로 본 적 없는 새로운 모습이다.



1. 1970년대 초반 영국에서 등장한 록의 일종. 퍼포머들이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며, 머리 모양을 꾸미는 것이 특징이다.
2. 상업화에 동조하기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철학과 스타일을 음악에 담아 활동하는 독자적인 부류. 이런 인디문화가 펼쳐지는 전반적인 활동 영역을 '인디산'이라 한다.



이 같은 파격의 행보를 보인 그룹으로 이날치 이전에 '쌍쌍밴드'가 있었다. 민요(특히 경기민요, 서도민요)나 무속음악 등 우리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곡을 만든 쌍쌍밴드는 미국의 유명한 음악프로그램인 NPR Music Tiny Desk Concert에 출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음악인으로는 최초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통 민요인 <오봉산 타령>과 <한강수 타령>, <난봉가>, 랩과 민요가 크로스오버된 <사설난봉가>를 선보이며 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화려한 의상이 눈에 띈다. 전통민요와 글램록(Glam rock)¹⁾의 콜라보쯤 될까. 그 중심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인 경기민요 전수자 이희문이 있다. 그는 소위 '어른들이나 즐기는' 것으로 생각되던 전통민요의 틀을 깨트리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선보였다. 미국 안방에 충격을 던진 이 공연을 계기로 쌍쌍밴드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빨리 알려졌고, 이어 인디산²⁾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목받았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뉴노멀 시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다. 그것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는 '핵심'이 아닐는지. 🇰🇷

사	랑	하	는				
		나	의		사	람	아

2020년, 사상 초유의 팬데믹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 크게 느꼈을 성우인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과 동료, 친구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커졌으리라.

이에 성우인들이 2021년을 맞아,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함께 일하고, 웃고,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얼굴을 만나보자.

love



금형설계팀 최배승 차장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집에서 머문 시간이 많았습니다.
한참 뛰어놀 아이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아이들에게도, 또 함께 고생한
아내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2021년에는 마음껏 웃으며
뛰어다니고 여행 가즈아!!!



최배승

정병진

공정QC 정병진 기장

우리 두 사람이 만나 천사 같은 아이 둘을 만났고,
2021년엔 사랑스럽고 축복과도 같은
셋째도 만나게 되겠네요.
새 식구가 함께하게 될 2021년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했고, 앞으로 더 수고스럽겠지만,
늘 그렇듯, 우리 둘이 함께,
이제는 세 아이들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갑시다.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창영

글로벌개발팀 정창영 부장

2020년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준 한 해였지만,
동시에 많은 가르침과 지혜를 준 한 해인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가는 해이든, 오는 해이든 우리 삶 속에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잘 배웅하고, 맞이하느냐가
우리 삶 속에 지혜와 덕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성우인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복됨을 부르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I WISH THINGS WOULD RETURN TO NORMAL SOON!!
하루빨리 원래의 일상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품질경영팀 이영석 대리

황수현 사원이 입사와 동시에 우리 팀에 합류한 지 어느새 2년.
눈 깜짝할 사이인 듯한데,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습니다.
그런 황수현 사원이 새해를 맞아 새 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새 팀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원합니다.

이영석





박영민



업무개선팀 박영민 차장

흘러가는 시간, 잠시 멈춰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2020년은 코로나 탓에, 해외 출장을 가느라,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하기 힘들었습니다.
2021년은 서로의 시간 속에 자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

김정일

아산 금형반 김정일 조장

은찬, 은샘, 은별아!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따라줘서 고마워.
2021년에는 맑은 하늘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지 힘차게 전진하는
새해가 될 테니, 모두 힘내자^^ 우리 아들, 딸들~사랑한다!



당첨을
축하합니다
(커피교환권 지급)

- 금형설계팀 최배승 차장
- 공정QC 정병진 기장
- 글로벌개발팀 정창영 부장
- 품질경영팀 이영석 대리
- 아산 금형반 김정일 조장

어른들을 위한 동화, 애니메이션으로 빛어내는 세계

어릴 적 일요일 아침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던 만화 시리즈를 기억하는지.
악당을 물리치는 히어로도, 아름다운 공주와의 사랑도, 우주여행도 가능했던 만화 속 별세계.
어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은 그때의 별세계를 꿈꾸는 많은 ‘어른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을 위한 장르일 것이라는 한계를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애니메이션을 만나본다.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IMDb, 스튜디오지브리(<https://www.ghibli.jp/info/013381/>)

스튜디오지브리

이웃집 토토로

동심이 그려낸
맑고 아름다운 세상

고요한 시골 마을. 보기만 해도 자연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수채화풍 풍경 속에 ‘사츠키’와 ‘메이’가 등장한다. 아빠를 따라 시골로 이사 온 자매의 모습은 맑고 순수하다. 새집에 대한 경계나 두려움 없이 이곳저곳을 누비는 아이들은 얼굴 한가득 웃음을 짓는다. 아이 특유의 에너지와 호기심 가득한 모습에 절로 미소를 짓게 된다. 영화는 이런 자매의 어여쁜 모습을 담아내며 시작된다. 자매의 집을 관리하던 할머니부터 무심한 듯 사츠키를 배려하는 시골 소년 칸타, 같은 반 아이들까지. 마을 사람들은 하나 같이 내 일처럼 자매의 일에 신경을 쓰고 도움을 주려 한다.

스튜디오지브리의 대표작 <이웃집 토토로>는 이처럼 맑은 영화다. 조건 없이 서로를 돕고 아끼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한



—
 <이웃집 토토로>는
 맑은 영화다.
 조건 없이 서로를
 돕고 아끼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를 보여준다.



영화의 세계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가 숲의 수호자로 그려지는 토토로다.

토토로는 메이가 찾아낸 신령스러운 존재다. 어느 다섯 살 아이가 그러하듯,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메이는 어느 날 마당에서 알 수 없는 존재들을 만난다. 홀린 듯 그들을 따라 커다란 나무 안까지 들어가게 된 메이 앞에 이제껏 만난 적 없는 존재가 있다. 제 몸집의 몇 배는 되는 낯선 존재를 보고도 메이는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없다. 다만 호기심 가득한 질문 “너는 누구니?”가 먼저다. 그에 반응하듯 소리를 내는 존재에게 메이는 선뜻 ‘토토로’란 이름을 붙여준다. 다음에 이어지는 시퀀스는 평화로움 자체다.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메이는 토토로의 배 위에서 경계 없이 잠이 든다. 사츠키와 토토로가 만나는 장면 역시 그렇다. 비 오는 날 아빠를 마중 나간 사츠키는 잠든 메이를 업고 있다가 말없이 곁에 다가온 존재를 눈치챈다. 나뭇잎을 우산 삼아 곁에 선 것은 동생이 말했던 토토로. 사츠키는 메이가 그러했듯 경계 없이 우산을 건넨다.

나무 속에서 사는 거대하고 신령스러운 존재 토토로, 빈집을 지키고 있다가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검댕 무리, 하늘을 나는 거대한 고양이 버스, 그러한 존재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동심 가득한 아이들, 그리고 순수하고 친절한 사람들... 맑은 생각들로 가득한 영화 <이웃집 토토로>가 개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랑받으며 스튜디오지브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유다.

디즈니스튜디오

겨울왕국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여성 캐릭터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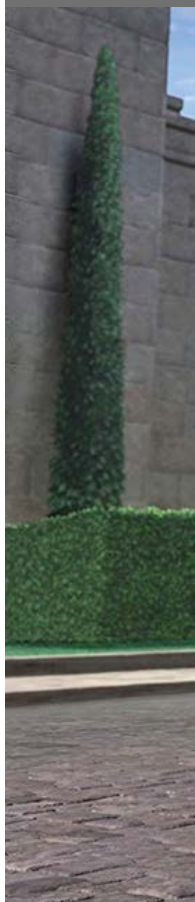
‘디즈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사연 많은(?) 여주인공 캐릭터가 그것이다. ‘디즈니공주’로 대표되는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캐릭터들이 그렇다. 이들을 사연 많은 인생에서 건져내 주는 것은 스스로가 아닌 ‘백마 탄 왕자’들. 여성들은 도움을 받는 존재이며, 여성의 지위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캐릭터들은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주체적 여성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매력을 잃어갔다.

2014년 개봉한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 자매는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대표되는 ‘디즈니공주’의 전형을 뛰어넘는다. 자매는 태생부터 아렌델 왕국의 왕위를 이을 캐릭터인 데다, 입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엘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내면의 힘을 감추고 있지만,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을 때 강한 해방감을 느끼며 비로소 성장하는 인물이다. 그런 엘사의 자주적 주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신이 바로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Let it go’ 시퀀스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짓눌러온 압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찾는 엘사의 역동성이 정점에 이른다. 안나 역시 마찬가지다.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의 안나는 운명의 사랑을 꿈꾸는 순수한 캐릭터인 동시에 엘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용기 있다. 그런 한편, 왕위를 노리며 접근한 ‘왕자’를 과감히 처단하는 강단 있는 모습도 보인다. ‘디즈니공주’의 전형성을 탈피한 캐릭터의 힘으로 <겨울왕국>은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천만 관객 돌파 애니메이션에 이름을 올렸다.



F R O Z E N

‘디즈니공주’의
전형성을 탈피한
캐릭터의 힘으로
<겨울왕국>은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천만 관객 돌파 애니메이션에
이름을 올렸다.



드림웍스

슈렉

반전 캐릭터가 주는
의외성의 매력

스테레오 타입
영화들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부순 <슈렉>은
기존 동화 속 주인공들을
사정없이 비튼다.

지저분하고 못생긴 데다 성격까지 괴팍한 녹색 괴물. 슈렉은 기발한 상상력으로 탄생한 드림웍스의 반전 캐릭터다. 기존의 동화가 꿈과 희망을 주는 주제나 아름다운 외모에 능력 좋고 스펙 넘치는 주인공들의 모험담을 담아냈다면, 슈렉은 그 틀을 거부한다. 주인공으로 내세운 캐릭터가 진흙으로 사워하고, 트림으로 난롯불을 켜는가 하면 귀지를 훔칠 대용으로 쓰는 등 온갖 지저분한 모습은 다 보인다. 다만, 괴팍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남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의 삶을 조용히 살고자 하는 '좋은' 괴물이다.

스테레오 타입 영화들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부순 <슈렉>은 기존 동화 속 주인공들을 사정없이 비튼다. 착한 사람들은 늘 잘생기고 예쁘게 묘사되며 이들은 곧잘 주인공으로 그려졌지만 <슈렉>에서 만큼은 아니다. 킥버벨을 팔아넘기는 피터팬이나 부케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신데렐라와 백설공주가 그렇다. 대신 입 냄새 심하고 지저분한 데다 괴팍하기까지 한 녹색 괴물은 유쾌하고 즐겁게 역경을 헤쳐 나가며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변모한다.

'피오나'는 어떤가. 왕자에게 '구해져' 결혼하는 대신, 진정한 사랑을 찾아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디즈니공주의 전형을 비틀었다. 영화 내내 흐르는 이러한 분위기는 엔딩에서 정점에 이른다. '아름다운 왕자와 공주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틀에 박힌 엔딩 대신, 녹색 괴물과 진정한 사랑에 빠진 공주는 그와 닮은 모습을 받아들이고, 늑으로 돌아가 괴물 원래의 삶을 함께한다. 소위 '영웅'이 되기에는 한참 모자라고 허술하며, 허점투성이지만 슈렉만의 개성과 치명적인 매력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녹색 괴물에게 화려한 왕궁보다는 지저분한 늑에서의 생활이 더 자신답고 행복할 테니. 



해안가 드라이브 코스, 언택트 여행 GO GO~

Untact Travel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이 'untact(비대면)'로 진행되고 있다.
여행 트렌드도 바뀌는 추세다. 드라이브 여행은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대표적 언택트 여행이다.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달리노라면 멀리 보이는 수평선과
그 위를 달팽이처럼 꼬물꼬물 움직이는 작은 어선들,
눈부신 햇살과 상쾌한 바람,
부서지는 하얀 유리알 파도가 있다.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이며
동시에 회복제이다.”

- 대니얼 드레이크 (19세기 미국 의사)

푸른 하늘 아래 수변공원은 피톤치드를 서비스 하고 정성스레
싸 들고 간 도시락과 과일을 즐길 공간을 내어준다. 뛰놀 곳이
마땅치 않던 아이들은 잠시나마 깔깔대며 마음껏 뛰어본다.
우리나라 해안 삼면은 철 따라 시간 따라 변화무쌍한
페르소나의 매력을 지녔다.
같은 듯 다른 매력을 지닌 우리나라 동해-남해-서해의
해안가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한다.

다랭이논의 예술을 감상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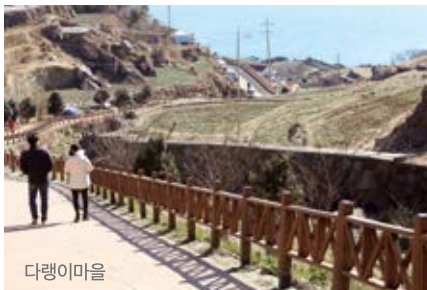
드넓은 바다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 오밀조밀한 해안 마을이 두루 펼쳐진다. 고향에 온 듯한 정겨움과 이국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자아내는 해안선을 따라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지정된 드라이브 코스는 말 그대로 절경이다.

南海

다랭이논



상상양떼목장



다랭이마을

남해고속도로에서 진교ic로 내려 남해대교로 향한다. 대교를 넘으면 남해군에 들어서게 되는데 해안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상상양떼목장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안내를 만난다. 5시 방향으로 급히 꺾인 길이라 자칫 지나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초록빛 하늘에 떠 있는 폭신한 구름처럼, 몽실몽실한 양떼와 백사슴 등을 방목하는 곳. 동물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의 손길을 피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니 드라이브 중 잠시 들러보길 추천한다.

다랭이마을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다시 드라이브를 시작한다. 해안을 따라 흥현1리 마을을 지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지정된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할 수 있다. 곳곳에 계단식 논이 보이는데, 마치 베트남 사파에 온 듯하다. 계단식 논은 '다랭이논'이라 불린다. 목적지인 다랭이마을에 도착하면 잠시 차에서 내려 마을을 걸어보자. 오는 길에 보았던 논과 비교가 안 될 다이내믹한 굴곡의 다랭이논이 펼쳐진다. 마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다랭이논이 이국적이고 그림 같은 분위기를 펼쳐낸다. 밭길이 쉬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

커피 한잔을 테이크아웃하여 여유를 부리며 산책을 하노라면, 여러 갈래의 마을 길이 즐거움을 더한다. 가파른 길을 힘겹게 오르시는 마을 어르신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잠시 허리를 세우고 방문객에게 정겹게 인사를 건네신다.



西海

서해

연륙교를 따라 고군산군도의 비경을 담다

고려시대 외국 사신의 정박지로, 국제적 물류항으로
활기를 띠었던 고군산군도와 선유도.
지금은 피서객과 여행객의 발길이 머무르며
그와는 다른 모습의 활기를 띤다.

새만금길을 들어선다. 탁 트인 수평선이 펼쳐지면 크게 숨을 들이킨다.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다. 바다 한복판을 달리다 보면 새만금길 중간에 '가력도'라는 조그만 섬마음이 나온다. 운이 좋으면 홍합을 채취해 들어오는 어선에서 싱싱하고 값싼 홍합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단돈 1만5천 원에 10킬로그램이 넘는다. 새만금로가 끝나면 신시도가 나온다. 곳곳에 벽화가 그려진, 아담하고 올망졸망한 마을 경치에 카메라 셔터가 바빠진다.

신시도에서 시작된 연륙교(8.77km)는 무녀도-선유도-장자도를 연결하는 훌륭한 드라이브 코스다. 풍경을 보노라면, 마치 바다가 섬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섬들이 바다를 껴안고 있는 듯하다. '산이 많다'는 군산(群山)을 실감한다. 섬 사이에 놓인 바다는 어쩌나 안전한지 거센 풍랑이 불어도 호수인 듯 고요하다.

선유도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으니 자전거 하이킹을 즐겨도 좋다. 언택트 여행이지만, 여행지를 콘택트하게 즐기는 좋은 수단이다.

섬으로 들어가는 코스는 두 가지다. 군산(빛과 그림자의 도시 군산「별을쏘다」6호 참고)에서 새만금방조제를 타고 들어가는 코스와 부안(부안 변산에 반하도다「별을쏘다」20호 참고)에서 새만금길을 통해 들어가는 코스가 있다.



풍차가 보이는 새만금
(사진제공 : 군산시)

東海

동해

태양을 품은 바다, 영덕대게로와 해맞이공원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 소설 <데미안> 중

동해의 수평선에서 솟구치는 일출은
마치 알을 깨고 태어나는
새 생명처럼 신성함마저 깃들어있다.

영덕대게로는 영덕해파랑공원에서 시작해(약 9~10km) 영덕해맞이공원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다. 일출시간에 맞춰 영덕해맞이공원에 도착하여 일출을 본 뒤 강구항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도 좋겠다. 입지상 동해는 해맞이 명소가 많다. 오메가(Ω) 모양을 만들며 솟는 해를 보노라면 사람들에게 생명의 탄생을 가르치는 우주의 진리가 펼쳐지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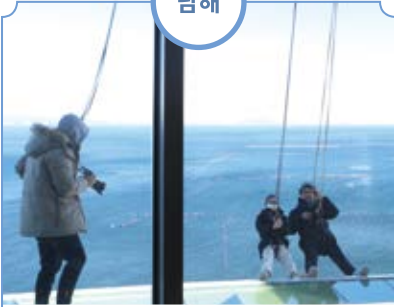
영덕해맞이공원은 꽤 여유가 있다. 잠시 주차를 하고 소풍을 즐기기 좋다. 바다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면 동해의 바람은 이유를 묻지 않고 머릿결을 쓰다듬으며 잘했다 칭찬한다.

동해에는 7번 국도를 중심으로 위로는 삼척의 새천년해안도로, 아래로는 가장 일광의 동부산 해안 일대 등 추천할 만한 드라이브 코스가 준비하다('동해의 힐링로드 7번 국도를 따라 떠나는 드라이브 스루 여행' 「별을쏘다」 22호 참고).



영덕해파랑공원

남해



(상)보물섬전망대&스카이워크
(하)독일마을

서해



(상)채금강
(하)부안군 모항 - 생각하는 바위

동해



(상)기장 오랑대
(하)삼척 새천년 도로



영덕해맞이공원

언택트 여행 팁

▶ 여행에 필요한 뉴노멀 제시 'SAFETY(안전)'

Short distance	근거리
Activity	야외활동 포인트
Family	가족 단위
Eco-area	자연친화
Tourist site	인기 관광지
Yet	관광수요 회복 조짐

▶ 체크 포인트

- 방역단계에 따르는 방역수칙 준수
-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 위생용품 준비
- 가는 지역의 컨디션 미리 파악
-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 팁

- 차박(자동차를 이용한 숙박) 텐트를 이용해 보자.
- 도시락을 준비하자.
- 커피나 음료는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자.
- 야외활동이 가능한 정차코스를 정해두자. 🌈



어려울 때일수록 깊이 새기는 상생과 나눔의 의미

겨울 사랑(애) 희망(찬) 김장나누기 / 착한 이웃 나눔 냉장고

코로나 영향으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의 변화, 어려워지는 경제 사정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울감마저 깃들게 하고 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에게는 특히나 더 그렇다.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할 때이다.

코로나 시대 ‘겨울 사랑(애) 희망(찬) 김장나누기’

‘겨울 사랑(애) 희망(찬) 김장나누기’ 행사 풍경이 올해는 조금 달랐다. 여름과 가을을 지나오며 살짝 주춤하는 듯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기온 하락과 함께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11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고, 자칫하면 9년째 이어오는 김장 나눔 행사의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해질 상황이었다.

행사를 진행하는 ‘웅상나눔회’ 회원과 ‘사단법인 희망웅상’에서는 회사와 조율하여 발 빠르게 대응했다. 가장 큰 변화는 김장행사 참가 인원이었다. 대개 100여명 안팎의 인원이 함께했으나, 올해는 50명(성우하이텍 봉사단 15인, 나눔회 회원 10인, 다문화가족 25인)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김장 후 함께하던 식사도 생략했다. 대신 나눔회 회원들이 떡과 음료, 어묵 꼬치를 개인별로 준비하여 아쉬움을 달래기로 하였다.

오전 9시경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모인 인원들은 먼저 체온 체크와 소독을 실시한 후 마스크를 끼고 김장 준비를 하였다. 준비된 절임 배추는 작년과 비슷한 양이었지만, 예년과 달리 줄어드는 인원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은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을 터였다. 덜컥 걱정이 앞섰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빛나는 것이 성우인들의 협동심 아닐까. 김장 버무리기조와 양념 및 배추배달조, 박스포장조로 나눈 성우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김장을 도왔다. 하지만 마스크



愛
饌

겨울(애)

희망(찬)

김장

나누기



크를 끼고 재게 움직이려니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한 시간이 흐르고 두 시간이 지나자 갑갑증마저 밀려들었다. 문득 예년의 분위기가 떠올랐다.

“양념이요!” “배추 좀 주세요!” 하며 왁자하던 분위기, 구수하게 퍼지던 수육 삶는 냄새와 몸을 녹여주던 뜨끈한 어묵 국물, 서로를 향해 미소 지으며 응원하던 예년의 추억.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2020년 ‘겨울(애) 희망(찬) 김장나누기’ 행사 풍경 속에서 다시 한 번 일상의 소중함을 떠올렸다.

이날 성우인이 함께 담근 김치는 웅상지역 내 저소득 세대, 한부모 세대, 다문화가정 등 140가구에 전달되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마저 줄며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2020년 겨울,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 맞추어 ‘성우공동모금’에서는 기부금 액수를 늘렸다. 성우인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에 전달되어 조금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기대한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 ‘착한 이웃 나눔 냉장고’

매주 화요일 저소득가정에게
식자재, 반찬 등 먹거리 나눔을 하던
‘착한이웃 나눔 냉장고’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경제 상황
악화로 기부가 줄어든 영향에다
행정복지센터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 자체를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취재팀이 소주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날은 몇 개월간
멈추었던 ‘착한이웃 나눔 냉장고’
행사를 재개한 날이었다.

‘착한이웃 나눔 냉장고’는 소주동 내 홀몸어르신 및 부자가정 등 먹거리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에게 먹거리 나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텃밭에서 작물을 길러 나누기도, 지역 주민의 기
부를 받아 매주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기도 한다. 특히 성우하이텍에서는 매주
따뜻한 국과 반찬을 제공하여 한끼 든든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정
갈한 반찬과 국을 먹으며 정성 어린 마음을 느낀 이웃들의 반응도 좋다.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착한이웃 나눔 냉장고를 위해 성우하이텍에서 마련한 국
과 반찬이 도착하였다. 제육볶음과 마늘종무침, 오이무침에 미역국이 더해졌다.
온기가 돌다 못해 뜨거운 반찬을 소분하느라 장갑을 낀 봉사자들의 손이 바쁘다.
마스크는 기본, 손소독제 등 국과 반찬에 더해 지역에서 기부받은 물품을 하나하
나 개별 포장하였다. 이렇게 포장한 물품은 평소라면 오후 2시경 행정복지센터
에 모인 이웃들에게 일괄적으로 나누어주겠지만, 이번에는 개별 연락하여 한 사
람씩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역시 코로나19 이후 바뀐 풍경이다.

착한 이웃



나눔 냉장고



한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몸이 불편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국과 반찬, 기부 물품을 직접 전달하기도 한다. 이날 반찬 배달을 할 가정은 모두 세 곳으로, 취재팀은 그중 한 곳에 동행하였다. 배달지는 소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한 분이 취재팀과 복지센터 직원을 맞이하였다. 연세 탓에 잘 들지를 못하신다는 할머니는 센터 직원과 취재팀을 향해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웃어 보이셨다. 우리가 모은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직접 전해져 가슴 따뜻한 감사로 돌아온,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다.

김장 나눔행사를 함께한 봉사자들 및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열정, 반찬 나눔을 통해
직접 만나본 이웃의 미소, 코로나19의 우울함도,
날이 갈수록 쌀쌀해지는 날씨도 녹여줄
그 특별한 순간을 많은 성우인과 나누고자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가진 무게를, 어느 때보다
깊게 느낀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것이 '문제'라면

햄.릿.증.후.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햄릿 3막, 1장 中

짬짜면, 양념 반/후라이드 반에 이은
아메리카노 반/라떼 반까지.

정보 과잉의 시대, 우리는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에 시달린다.

'예, 아니요'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글쎄'라는 애매한 대답이 튀어나오기 일쑤.
결정장애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소소하게는 점심 메뉴부터 집을 장만하는
큰일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 현재의 '나'
란 사람 자체가 다양한 선택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학 발전과 인터
넷의 보급으로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
고 있는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넓어진 선택
의 폭 앞에서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 넘
쳐나는 콘텐츠와 상품들 중에서 정작 제대
로 된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보
의 바다'라는 인터넷에는 처리할 정보가 지
나치게 많다. 어느 것이 옳거나 그른지, 내
게 필요한지, 혹은 더 중요한지에 대해 판단
해야 하나, 넘쳐나는 정보로 그 처리 능력과
분석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능만큼
이나 무언가를 결정하는 능력도 중요한 시
대, 스스로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고
타인에게 결정을 맡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햄릿증후군'은 이처럼 선택의 순간 결정에



Hamlet Syndrome

애를 먹는 현대인들을 빗대어 등장한 신조어이다.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해야 했던 햄릿만큼은 아니지만, 매사에 확신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결정의 순간은 큰 스트레스이다.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 취향과 성격, 연령 등을 분석한 뒤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 ‘큐레이션’도 각광받고 있다. 큐레이션은 박물관-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설명하는 큐레이터(Curator)에서 파생됐다. 영화 추천 앱(왓챠)이나 숨겨진 맛집을 추천해주는 앱(망고플레이트)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추천해주기에, 정보 과잉의 공해 속에서 수많은 선택지를 강요받는 현대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다.

이와 함께 선택의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수많은 선택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동반한다. 실패 역시 선택의 결과인 것. 선택으로 인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

나도 햄릿증후군?

- | | |
|--|--------------------------|
| 1. 점심 메뉴를 항상 고민한다. | ☐ |
| 2. 쇼핑 가서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온 경험이 있다. | ☐ |
| 3. 선택의 상황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 | ☐ |
| 4. 무슨 색을 사야 할지 몰라 같은 디자인의 옷을 색깔별로 산 적이 있다. | ☐ |
| 5. 질문을 받으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등의 말을 반복한다. | ☐ |
| 6. ‘우유부단하다’, ‘답답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 ☐ |

▶ 2개 이상 해당하면 햄릿증후군

신제품 신성장

2021년 성우하이텍
축적된 경량화 기술과 노하우,
미래 혁신 의지를 담은 신제품으로
신성장의 날개를 달다



- 국내 (주)성우하이텍
정관공장, 서창공장, R&D센터, 금형공장, 코일센터, 지사공장, 핫스탬핑, 서울사무소, 수원연구소
(주)아산성우하이텍, (주)성우홀딩스
- 해외 북경법인, 심양법인, 연태법인, 창주법인, 무석법인, 염성법인, 충칭법인, 인도SHI, 인도SSP, 인도SHAP,
우즈베키스탄법인, 체코법인, 슬로바키아법인, 러시아법인, 독일WMU, 독일WMU B,
멕시코법인, 미국사무소